

[TV]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완 “뉴욕 드라마 촬영 기대돼요”

한일 합작 드라마 '목련꽃...' 뉴욕속 아시아 젊은이들 이야기

이완(23·사진)이 한일 합작 드라마 '목련꽃 아래서'의 주인공을 맡아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상대역은 일본의 아이돌 스타 스즈키 아미(25)로, 일본에서 1998년 데뷔해 TBS 일본레코즈대상 신인상과 금상 등을 수상한 가수 출신 연기자이다. 한국 배우로는 신인 연기자 우미숙이 출연한다.



이완(23·사진)이 한일 합작 드라마 '목련꽃 아래서'의 주인공을 맡아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상대역은 일본의 아이돌 스타 스즈키 아미(25)로, 일본에서 1998년 데뷔해 TBS 일본레코즈대상 신인상과 금상 등을 수상한 가수 출신 연기자이다. 한국 배우로는 신인 연기자 우미숙이 출연한다.

'목련꽃 아래서'는 일본 후지 산케이 커뮤니케이션스 인터내셔널이 제작하는 드라마로 에이아이글로벌 등 국내 회사들이 공동 투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드라마.

뉴욕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남성 바이올리니스트(이완)와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일본 여성(스즈키 아미)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활약하는 아시아인의 삶을 그린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완은 "일본에서 드라마 '천국의 나무'를 촬영할 때도 언어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촬영이다 보니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신경써야 할 것 같다"며 "뉴욕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 뜨겁고 기쁜데 이런 마음이 드라마에서도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뉴욕 촬영이나 한일 합작 등의 의미를 떠나 모든 작품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얻는다"면서 "촬영에 앞서 기본적인 장면을 소화하기 위해 바이올린 연주도 배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 日골든디스크 대상

인기그룹 신화가 13일 오후 6시 열린 '제21회 일본 골든디스크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아시아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신화는 스케줄상 참석하지 못해 대리 수상했다.

신화는 지난해 6월14일 일본에서 첫 싱글 '보쿠라노 고코로니와 다이요가 아루(우리의 마음에는 태양이 있어)', 지난해 8월16일 정규 1집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 #1'을 발매해 각각 오리콘차트 9위와 4위에 진입하며 총 10만여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일본레코즈협회 주최하고 일본문화재단 및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이 후원하는 골든디스크대상 시상식은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음반산업에 공헌한 가수 및 작품에 분야별 상을 수여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음악 페스티벌이다.

신화는 "지난해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가키 주서영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 드라마와 솔로 음반 등 개인 활동을 펼치며 하반기 신화 9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iving TV advertisement for 'The Carrie Diaries' featuring a photo of Dianna Agron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with a horse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15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주방방송 (PBC Gwangju Kitchen Broadcast) advertisement.

TBN 교보방송 (TBN Gyo-bobroadcast) advertisement.

BBS 불교방송 (BBS Buddhist Broadcast) advertisement.